

## 한국 근현대사가 아로새겨진 석당박물관, 60주년 맞이하다

석당박물관에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한 장면, 장면이 담겨 있다. 동아대를 넘어, 부산을 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빛날 그날을 기대해본다.

### 동아는 지금 제호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받은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김재홍)

###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113호)

발행일 2019년 9월  
 발행인 한석정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하단동)  
 T.051)200-6042-3 F.051)200-6015  
 www.donga.ac.kr / www.fund.donga.ac.kr  
 디자인 대훈기획 051)898-0330

# 동아대학교, 그리고 동아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113번째 소식지

<b>Issue Focus</b>	<b>04</b> 개관 60주년, 지역민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동아대 석당박물관	
	<b>10</b> 70년 역사의 동아대 총동문회, 100년 향한 새 플랫폼 되다	
<b>Hot News</b>	<b>14</b>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b>18</b> 첨단 통합 미러링 시스템 갖춘 '협력형 강의실' 구축
	<b>15</b> 링크플러스(LINC+) 사업 2단계 진입	<b>19</b> 동문 최초 '4성 장군' 탄생
	<b>16</b>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선정	<b>20</b> 김성훈(성킴) 홍콩과기대 교수 초청강연 개최
	<b>17</b>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선정	<b>22</b> 정부 표창 및 학술상 수상 소식
<b>Dong-A People</b>	<b>24</b> 공병영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_ '내 삶의 8할은 도전, 섬 없는 도전을 말하다!	
	<b>26</b> 이은남 간호학부 학부장 _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마음으로'	
	<b>28</b> 최수혁 학생(산업디자인학과 4) _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 최수혁입니다	
	<b>29</b> 박민수 학생(토목공학과 4) _ "나를, 당신을, 동아인을 응원합니다"	
<b>Happy Donation</b>	<b>30</b> 발전기금 · 기부현황	<b>42</b> '후원의 집' 소개
	<b>40</b>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소개	<b>43</b> 기부 및 납부방법 안내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동아대 석당박물관





▲ 창설(1959) 당시 박물관이 자리잡았던 석당도서관 건물



▲ 단독 전시관으로 이전 개관(1966) 당시 박물관 건물



▲ 경남도청으로 사용됐을 당시 현 박물관 건물

60 years  
지역민과 함께 하는  
스토리가 있는 열린 박물관

올해 문화 트렌드는 한마디로 '레트로', 새로운 복고이다. 사람들은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는 옛 감성에 참신한 스토리를 원한다. '스토리텔링'이 가진 힘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유물로만 여겨지던 '어떤 것'에 '이야기'가 더해지면,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생각에 빠진다. 새로운 문화의 탄생이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동아대 석당박물관을 찾는 발길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이는 부산의 근대를 조명하는 원도심 투어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그때 그 시절, 삶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동아대 박물관은 동아대를 넘어 부산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오랜 세월이 압축되면서 부산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근현대사의 중심, 동아대 석당박물관

올해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부산에서는 최초로 개관한 박물관으로, 개관 60주년을 맞는 동시에 '피란수도 부산'의 임시수도정부청사였던 건물을 박물관으로 쓰기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기 때문이다.

1959년 11월 1일, 구덕캠퍼스 중앙도서관(현 석당도서관) 3층에 진열실을 마련한 것을 시초로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1966년 구덕캠퍼스 박물관 건물로 이전 개관했다가 2009년 부민캠퍼스로 옮겨왔다.

현재 동아대 박물관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 경상남도 도청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서양의 고전주의 양식과 일본의 목조양식이 결합된 좌우대칭의 붉은 벽돌 건물이 특징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임시수도정부청사로, 이후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 등으로 활용된 유서 깊은 건물이다. 격동의 우리 현대사 한 장면, 장면이 건물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다.

피란수도 부산 시절 1023일 동안 이 건물은 국무회의소와 국무총리실, 8개 정부부처 등이 사용하는 정부종합청사였다. 이처럼 부산을 대표하는 근대 건축물인 동아대 석당박물관 건물은 지난 2002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후 동아대가 부민캠퍼스를 조성하며 건물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리모델링, 서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1959 11. 01.** 박물관 창설  
(구덕캠퍼스 현 석당도서관 3층)
- 1966 10. 30.** 이전 개관  
(구덕캠퍼스 박물관 건물)
- 2002 09. 13.**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현 박물관) 등록문화재 41호 지정
- 2009 05. 19.** 이전 개관(부민캠퍼스)

개관일 | 화요일 ~ 일요일(법정 공휴일 휴관)  
 개관시간 | 09:30 ~ 17:00(16:30 입장종료)  
 위치 |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  
 ※ 관람료 무료(문의 : 051-200-8493)

### 부산시민과 함께 만드는 박물관

동아대 '석당박물관'이라는 명칭은 학교 설립자인 정재환 박사의 호인 '석당 石堂'에서 비롯됐다. 석당 선생은 1946년 동아대학교를 설립한 후 곧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여러 경로로 부산으로 오게 된 많은 문화재들을 사재를 털어 입수하고 이를 박물관에 모두 기증했다. 이 당시 입수된 문화재들이 동아대 박물관의 기초가 되었음은 물론 구할 수 없는 귀중한 문화재들을 소장하게 된 배경이다.

그로부터 시작된 동아대 박물관은 '부산시민과 함께 만드는 박물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실제 시민들의 참여가 만들어진 박물관이다. 1959년 개관 이래 시민들과 단체 등으로부터 5000여 점의 문화재를 기증받았다. 최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문화재 기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동아대 박물관은 구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국보 2점, 보물 54점, 국가민속문화재 4점, 등록문화재 2점, 지방유형문화재 115점 등 모두 2만7000여 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조선 왕조가 개국할 당시 제작된 문서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은 국보 제69호, 창덕궁과 창경궁을 함께 그린 병풍 <동궐도>는 국보 제249호로 지정됐다. 안중근 의사가 직접 쓴 <안중근 의사 유묵>(보물 제569호), 부산 영선동 패총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의 토기 용기문 발(보물 제597호), 조선 중기에 제작된 소형 화기인 쌍자총통(보물 제599호) 등의 보물과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도 있다. 빗살문토기옹관, 단도마연토기, 마제석검 등 선사시대 유물과 <화초도>, <풍속도>



▲ 토기 용기문 발(보물 제597호)



▲ 쌍자총통(보물 제599호)

<금강전도 12곡병> 등 회화 작품, <효종어필>, <정조어필> 등 서예 작품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올해 4월 회화 작품인 <이덕형 초상 초본>과 <정선 필 청풍계지각> 2점이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각각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기수 석당박물관장은 “두 작품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과 밀접하게 관련된 회화 작품으로 예술성이 돋보이는 유물”이라며 “앞으로도 소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연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국보 제69호)



▲ 석당박물관 소장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2층 진열실(고고실)

또 동아대 박물관 소장 문화재가 우리 일상에서 화제를 모은 사례도 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고액권인 5만 원권 지폐 뒷면에 <자수 초충도 병풍>(보물 제595호)이 그려져 있다. 화면 중앙을 수놓은 포도 그림 뒤로 그림자처럼 모습을 드러낸 그림 한 점이 바로 유물에서 나온 것이다. <자수 초충도 병풍>은 검정색 공단에 다양한 꽃과 풀이 곤충·파충류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정경을 수놓은 자수 병풍으로, 지폐 그림에는 여덟 폭 병풍 가운데 일곱 번째 가지 그림이 사용됐다.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2015년 5월 부산경남권 최초로 구글 아트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현재 전세계인이 구글 온라인 전시사이트에서 동아대 박물관의 유물을 감상할 수 있다. 영국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현재 60개국 90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부산문화의 '레트로 감성'을 주도하다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써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 부산의 피란수도 시절 유산 8곳이 201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동아대 석당박물관 건물인 임시수도정부청사를 비롯해 임시수도대통령관저, 근대역사관, 유엔기념공원, 워커히우스

등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부산 문화관광의 트렌드로 급부상했고, 역사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와 추억들은 박물관을 넘어 이제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피란시절을 체험하는 부산만의 독특한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 야행' 행사가 부민캠퍼스에서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개최된다. 이 행사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고단했던 지난날의 애환이 그려지는 장소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책으로만 배웠던 반세기 전의 역사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이다.



▲ 1950년대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활용된 석당박물관 건물

### 동아대 박물관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예술 체험학습

지난 3월부터 동아대 박물관은 2019년 생생문화재사업 '부산 근대유산 1번지, 생생하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이다.

올해 동아대 석당박물관에서는 '임시수도정부청사에서 놀자'와 '7080 근대감성여행', '기획전시 <근대생활사>', '임시수도정부청사 문화예술아카데미' 등 총 4개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그 중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수도정부청사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상반기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와 근대를 위주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하반기에는 부산 향토문화를 중심으로 마련된다.

동아대학교 개교 73주년 기획전시 '근대생활사'는 오는 10월 29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로, 동아대 박물관 소장 민속품과 그 시절의 생활상을 조명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또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2019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영도 문화유산 스쿨'을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창의력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위해 부산 영도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동아대 박물관은 '2018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방문교육 부문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증강현실(AR) 기술을 도입, 학생들에게 더욱 생동감 넘치는 체험 학습을 제공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피란수도 부산 야행'에서 전등갓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



###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교육프로그램, 인적자원 등을 결합해 유물과 현장, 역사와 사람이 만나는 인문학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대학 박물관과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덕분에 해를 거듭할수록 동아대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에는 4만여명, 2016년에는 7만여명, 2017년과 2018년에는 10만명에 임박하는 방문객 수치를 기록했다. 외부인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방문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박물관은 우리 일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역사적 기능을 넘어 지역의 문화거점이 된 유럽의 유명 박물관들에 비해 국내 박물관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기에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이제 해마다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어느덧 지역민에게 '열린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나누는 대화를 듣는다. 오래 묵혀 발효된 역사 스토리에, 새로운 콘텐츠가 더해지니 또 다른 감칠맛이 난다. 사람들이 동아대 석당박물관을 찾는 이유다.

▼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동아대 석당박물관 시민 참여 프로그램



# “역사문화 아카이브 센터, 부산 시민 자긍심 될 터”

INTERVIEW 김기수 석당박물관장

임시수도정부청사였던 건물을 활용해 온 동아대 석당 박물관은 ‘피란수도 부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핵심시설이다. 지난 2월 동아대 석당박물관장으로 취임한 김기수 관장은 임기 내에 석당박물관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박물관’으로 탈바꿈하며 새로운 전기(轉機)를 써내려가겠다는 김기수 관장의 희망찬 약속을 만났다.

## Q1 박물관장 취임 소감은?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 박물관으로 ‘피란수도 부산’의 핵심 유산이다.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박물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 Q2 박물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까지 역사 박물관의 역할은 유물을 발굴하고 보존·유지해 전시하는 데 그쳤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유물이 왜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리고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바뀌었다고 본다. 그래서 주말이면 박물관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다가 잠깐 들어올 수 있는 박물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나중이라도 ‘내가 어릴 때 뛰놀던 장소가 박물관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한다. 이곳이 열린 시설로 인식돼 배우고, 나누고, 공유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

## Q3 피란수도 시절 유산 8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다. 어떤 의미인가?

우리 박물관 건물과 임시수도대통령관저, 근대역사관 등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만약 유네스코 유산 정식 등재가



1961년 부산 출생, 88년 동아대 건축공학과 졸업, 김수근이 설립한 서울 공간건축사사무소 입사, 93~98년 일본 교토공예섬유대학 건축학 석박사, 2001년부터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재직

된다면 국제기구에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고 세계적인 인지도와 가치를 인정받는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도시 정체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Q4 앞으로의 계획은?

단순히 건물과 유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에 남아있는 피란수도 시절의 기억과 의미를 어떻게 후대에 전달할 것인가에 주목하려고 한다. 이 유산이 가진 특성과 성격 규명으로 학술적인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또 구체적인 자료와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부산시민이 이런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때 세계유산 등재도 가능하다. 우리 동아대 석당박물관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박물관’으로 만들겠다.

70 years

역사의 동아대 총동문대회

100 years

향한 새 플랫폼 되다

동아대학교 총동문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20만 동아인의 우정과 결속의 구심체로서 모교와 동문 발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온 동아대 총동문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남다른 결속력을 자랑해왔다.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동아대를 빛낸 동아인의 역사,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동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온 '동아대학교 총동문회'가 있었다.

동문을 잇는 플랫폼, 총동문회 출범하다

우리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인생의 한 단계마다 수많은 관계를 맺는다. 그 집합체의 구체적인 형태를 인맥이라고 하며 학교 안에서 만들어진 인맥은 '동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학교를 떠난 후에도 끈끈하고 강한 결집력을 발휘하며 서로를 잇고 있는 동문들. 지난 70년 동아대 총동문회는 한국 사회에 우뚝 섰고 우리 현대사 속에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

총동문회가 출범한 것은 1949년, 동아대 개교 4년째 되던 해다. 1949년 7월, '동아대학 동창회'로 출범, 서봉희 동문(정경 1회)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하면서 시작됐으나 초창기 기록은 많지 않다. 이후 10~14대(1969~1979) 및 16~17대(1981~1985) 회장을 역임한 정운조 동문(법률 3회)이 활동하던 때는 총동문회가 크게 번성한 시기였다. 활발한 동문 찾기운동과 함께 각 단대와 지역 동문회 창립이 잇따랐다. 모교 개교 30주년 기념행사 참여, 석당선생 기념사업 추진, 동문회관 기공 같은 기념비적 사업이 많았고, 동문회보 역시 이때 탄생했다.

▼ 1947년 동아대학 설립인가 기념촬영



### 활발하게 전개된 지부·지회 결성 사업

동문회는 15대 조동환, 18대 성해기, 19~21대 박영한 회장을 거치며 한층 더 활성화 됐다. 성해기 회장에 국내를 넘어 미국 LA 동문회를 결성했고, 회원 4만 명을 기록한 명부를 발간했다. 박영한 회장에 동아대 동문장학회 법인을 설립했고, 재경동문회보를 발간했다. 이 시기 사법시험, 행정고시에 각 12명이 합격하고, 강태홍 동문이 부산광역시장에, 우병택 동문이 부산시의회 초대 의장에, 박관용 동문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취임하는 등 동아동문의 쾌거도 잇따랐다.

22~23대 우병택 회장에 '힘 있는 동문회'로 거듭났다. 법인-동아대-총학생회와 범동아인 한마당을 공동주최하고, 단과대와 지역별 동문회 운영을 크게 활성화한 시기다. 29~30대 정순택 회장은 동문들의 폭넓은 개혁 의지를 딛고 취임했다. 이후 많은 동문의 정당한 의지를 모아 재단개혁을 촉구하며 적절한 비판 기능을 다했다. 동문조직강화사업은 동문회가 창립된 이후 일관되게 제순위로 꼽혀온 동문회의 최대 과업이었다. 1987년 한 해 동안 총동문회 산하 조직이 잇달아 결성됐다. 2월 28일 경기지부동문회가 창립한 것을 시초로, 6월 12일에는 울산울주지부동문회가 결성됐고, 충무지부동문회도 11월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경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동문회가 결성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 밖에도 1987년 11월 경제학과동문회와 법대동문회가 창립됐다. 기별 모임은 꾸준히 전개해 오면서도 단대 동문회로서는 뒤늦게 출발한 법대동문회는 창립과 함께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경제학과 동문들도 장학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 하나 주목할 동문 조직은 부산세관 산하 재직 동문들로 구성된 '취회회'로, 최초의 공무원 직장 동문회다. 이처럼 지역과 단대, 학과, 직장 동문회 결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을 당시, 동아인의 자부심을 한껏 고취시킨 소식이 멀리 미국에서 날아들었다.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남가주동문회를 결성했다는 소식이었다. 남가주동문회는 1984년 LA올림픽 당시, 유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하형주 동문을 응원하러 나온 교민들 가운데 10여 명의 동문이 서로 선후배 관계임을 확인하고 즉시 동문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아 1985년 2월 창립 모임을 가졌다. 남가주동문회는 중부 지역 및 전미 지역을 아우르는 미주동문회 결성을 위해 동문찾기운동에 힘을 기울여 100명에 이르는 동문들의 소재를 파악했다. 1986년 말 열린 정기총회 겸 송년회에는 남가주 동문 대부분이 참석해 동문애를 나누고 모교 발전과 미주 지역 동문들의 상부상조를 다짐했다.

최근까지 이들은 끈끈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엔 한석정 총장과 신정택 총동문회장 등이 LA 현지를 방문, 동문들과 만남을 가졌다. 또 2017년에는 동아대에서 공부한 중국인 동문들이 유학생 동문회를 창립, 한국과 중국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LA에서 열린 미국 서부지역 동문 초청 총장 간담회





▲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발족식에서 의지를 다지는 위원들

### 모교 사랑의 실천, '동아 100년 동행'은 계속된다

동아대는 총동문회 창립 70주년에 앞서 동문들을 하나로 묶는 사업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동아대는 지난해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개교 100주년 대비 학교 사랑 캠페인의 공식 출발을 선언했다. '동아 100년 동행'은 동아대 최초의 동문관이 될 가칭 '미래교육관' 건립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고 신입생 대상 교양교육 전용 강의시설을 확보,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허브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이다.

신 회장은 “‘동아 100년 동행’이라는 슬로건에는 우리의 자긍심이 묻어 있다. 선후배, 동기들이 지금도 앞다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고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동아100년 동행’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이 순항하고 있다.”며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의 150억 원 약정을 마중물로 여러 동문들의 기부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동아대 총동문회 창립 69주년 정기총회



▲ 신정택 총동문회장 취임 축하 기념촬영



▲ 굿은 날씨에도 동문 500여 명이 참석해 대규모로 치러진 총동문회 창립 70주년 기념 한마음 골프대회

### 70년의 역사,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1949년 1회 졸업생 33명 배출로 시작된 총동문회는 이제 20만 동문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 됐다. 지난해 말 제35대 동아대 총동문회장에 취임한 신정택 회장은 동아대 20만 동문과 동아대가 힘을 합쳐 새로운 마음으로 '동아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를 위해 4대 당면 현안을 뼈대로 한 '동아 명성 잇기' 비전을 정리, 실행에 옮기고 있다. 신 회장이 압축한 올해 4대 현안은 △동아대 미래교육관(동문관) 건립 지원 △70주년 기념사업 실행 △동문조직 강화 △동문회 재정건전성 확충 등이다.

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많은 대학들은 가까운 미래에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20만 동아인이 분연히 일어나 함께 힘을 모은다면 동아대는 급변하는 대학환경을 극복하고 전국 명문대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 동문의 참여와 열정을 호소한 바 있다. 동아 동문들은 특유의 애교심을 바탕으로 더 소통하고, 더 단합하며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20만 동문의 열정에 불을 지필 기념사업도 기본계획을 정리하고 있다. 신 회장은 총동문회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선 일반동문 및 동문조직 간의 소통 및 결속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문회 자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동문회보 발간방식 및 홈페이지 운영을 개선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총동문회가 본연의 기능을 확립, 동문사회의 플랫폼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 회장은 “지금 동아가 바로 서야 우리 당대의 빛나는 전통을 기약할 수 있고, 후세의 빛나는 영광도 약속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동문사회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온 동문의 자긍심에 불을 지펴갈 것”이라며, 70년 역사의 동아대 총동문회가 100년을 향한 새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했다.

# 1 스마트헬스케어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동아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으로 최종 선정, '수요자 데이터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산업 분야를 정해 그에 맞는 융합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제시, 그 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연간 10억 원 씩 모두 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아대가 혁신선도대학으로 펼치게 될 '수요자 데이터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은 리빙데이터(운동·영양·약물)와 메디컬데이터(생체계측·진료기록)를 종합 분석,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아대는 건강과학대학과 의료원, 재활요양병원 등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정밀 분석을 실시, '헬스케어 기획 전문가'와 '헬스케어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이번 사업 책임을 맡은 박병권(경영정보학과) 교수는 "동아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3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교육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주관 '로봇' 분야 기술개발사업 2개 과제 선정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9년 돌봄로봇 공동제품기술개발사업' 및 '2019년 제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인공지능 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 로봇 개발(의과대학 정동식 교수·동아대병원)'과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 로봇 개발(공과대학 김종욱 교수 인공지능·로보틱스 연구실)' 과제가 각각 선정됐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비교과 프로그램 활발

링크플러스(LINC+)사업단은 지난 7월 '라즈베리파이 실습을 통한 사물인터넷(IoT)의 이해와 기초', '스캐치업을 활용한 3D 모델링 및 3D 프린팅 실습'을 승학캠퍼스 한림도서관 지하 1층 'LINC+ 플랫폼 LAB' 등에서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프로그래밍과 사물 인터넷 기초를 습득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해 시제품도 제작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 부민캠퍼스, 승학캠퍼스, 구덕캠퍼스 전경(왼쪽부터)



## 2 산학협력 성과 고도화 링크플러스(LINC+) 사업 2단계 진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링크플러스) 육성사업에서 동아대학교가 2단계 사업에 최종 진입, 앞으로 3년간 국가로부터 약 12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동아대 링크플러스사업단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ABC선도모델 대상 확대 및 다차원적 성과 확산(D[Delta] Model)을 통한 산학협력 성과 고도화 실현'에 앞장, 대학 내 체계 및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산학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또 독자적으로 지속가능한 ICC(기업협업센터) 및 RCC(지역협업센터)를 육성,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업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특화분야 인재양성 및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아대는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비롯,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부산지역 거점 사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한석정 총장은 "성공적인 2단계 사업 수행으로 대학과 기업, 지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모델이 확대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3 비수도권 대학 최고 금액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의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동아대학교가 비수도권 대학 중 가장 많은 14억 5,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동아대는 지금까지 10년 연속 이 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 역대 최대 금액을 받는 쾌거를 올렸다. 올해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된 전국 68개 대학 가운데서도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받게 됐다.

동아대는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공정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생들의 대입준비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의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동아대는 중·고교 및 교육청 연계 강화, 정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대입전형 안내 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 개선, 고른기회전형 입학생의 학업역량 강화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성호 입학관리처장은 "앞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교생 참가 입시 관련 프로그램의 규모를 더욱 확대 운영해 지역 대표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 4 창업지원 간소화·효율 극대화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선정

동아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과 스마트벤처캠퍼스사업, 세대융합창업캠퍼스사업이 합쳐져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유사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사업화 자금지원과 창업자 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간소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은 특히 창업특화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뒀 기관별로 △지역거점 △대학·연구소 △청년 △산업 △중장년 △글로벌 등 특화 유형 가운데 3가지를 선택하게 해 추진된다.

창업선도대학으로 이번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수행 대학에 선정된 동아대는 '대학·연구소'와 '산업', '글로벌' 특화 유형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일 창업지원단장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은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을 재조정하는 만큼 내실을 기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5 슬리포노믹스 중소기업 지원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선정

에코디자인사업단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주관 대학으로 최종 선정돼 오는 2020년까지 수면 연관산업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육성 과제를 진행한다. 슬리포노믹스는 수면을 뜻하는 '슬립(sleep)'과 경제학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친 말이다.

에코디자인사업단(단장 박은주)은 부산시와 함께 최신 기술과의 융합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수면 연관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응모했으며, 전국 7개 과제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23개 과제에 포함됐다.

에코디자인사업단은 (재)부산디자인센터 및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 '슬리포노믹스 개방형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국비 5억 700만 원과 시비 5,070만 원 등 모두 5억 5,000여 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동아대 에코디자인사업단은 부산지역 수면 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슬리포노믹스 생활용품 개발 △ICT융복합 슬리포노믹스 제품 개발 △홍보물 및 패키지디자인 개발 지원 △BI개발 및 상표등록 지원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 승학캠퍼스 창업관 전경



## 6 전국 100개 대학 중 10위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선정

동아대학교 스포츠단이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2019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선정돼 모두 1억 3,3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 금액은 올해 사업에 선정된 전국 100개 대학 중 10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한국대학스포츠협회는 대학 운동부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산정된다.

전통의 대학스포츠 강자인 동아대 스포츠단은 지난해 야구부 전국체전 우승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이번 평가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은 운동부 선수들의 훈련비와 훈련용품비, 대회출전비 등에 사용된다.

신기욱 스포츠단장은 “올해는 단체종목과 개인종목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특히 더 신경 쓰겠다.”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체육특기생 선수들의 전지훈련 지원, 수업분반 개설 등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동아대 야구부 <사진제공=국제신문>



## 7 '취업률 우수' 평가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부산광역시 '2019년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동아대학교가 선정됐다. 지난해 사업 실시 결과, 목표 대비 취업률 108.3%를 달성하는 등 '취업률 우수'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이 사업으로 지역 우수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생과 4학년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펼친다. 취업동아리 운영 노하우와 프로그램 운영 능력, 동문 인력 풀(Pool), 지도·상담 능력 등을 바탕으로 올해 '취업역량강화 토털 케어 프로그램 동아 프론티어즈(Dong-A Frontiers)'를 운영한다.

'지역 우수기업 취업준비반'인 동아 프론티어즈는 경영지원과 영업관리, 금융, 공기업, 이공 등 희망 직무별로 학생을 선발, 단계별 직무교육과 지역 기업 현장탐방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동아대가 자랑하는 '순환식 취업교육 시스템'을 활용, 재직선배 초청 직무교육·실무자 초청특강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배들이 후배들의 취업교육을 위해 매월 1~2만 원씩 정기 기부하는 동아대 '후배사랑 취업교육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작, 지난해 3월 3억 원을 돌파했고 빠른 속도로 누적 모금액이 늘어 올해 4억 원을 돌파했다.

▼ 동아대 취업지원실에서 개최한 '리더스클럽 16-17기' 취업캠프



## 8 지역 대학 중 처음으로 첨단 통합 미러링 시스템 갖춘 '협력형 강의실' 구축

동아대학교가 지역 대학 중 처음으로 첨단 통합 미러링(mirroring) 시스템을 갖춘 '협력형 강의실' 4곳을 구축, 교수와 학생이 활발하게 소통하며 창의적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강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온라인 선행학습 뒤 토론식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을 비롯 캡스톤디자인(작품을 설계·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 PBL(Problem 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AL(Action Learning), 코티칭(co-teaching, 교수 여러 명이 함께 수업) 등 융합교육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에 최적화된 이 강의실에선 데스크톱과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 화면을 공유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동아대 교육혁신원은 올해 내로 협력형 강의실을 추가로 4곳 더 개설할 예정이며 앞으로 각 단과대학마다 1개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규관 원장은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강의실 설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현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교양과목 '융복합·문제해결·창조' 중심으로 급변

시대와 사회 추세에 따라 대학의 교양교육이 급변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은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빠르게 바뀌는 시대 흐름에 창조적 방식의 대응 능력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19학년도 교양교육과정을 부분 개편,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인간과 환경의 이해'를 교양필수로 개설했고, 각자 다른 전공의 교수 여러 명이 함께 강의하는 '코티칭(co-teaching)' 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러 학문이 융합된 사고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난 학기엔 디자인과 코딩을 융합한 '코딩으로 배우는 패션'을 개설, 패션디자인학과 이선희 교수와 전자공학과 김종욱 교수가 함께 강의했다.

김현수 기초교양대학장은 “앞으로 리버털아츠(Liberal Arts, 기초교양) 교육을 위한 토대가 될 다양한 주제의 융복합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양교육학생평가단이 제안한 교양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양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협력형 강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티칭 수업



## 9 남영신 장군, 지상작전사령관 임명 동문 최초 '4성 장군' 탄생


동문인 남영신 장군이 군 최고계급인 대장으로 진급,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동아대 학생군사교육단 23기 출신인 남영신(57) 장군은 동아대 출신 최초 4성 장군이자 ROTC 58년 역사에서 일곱 번째 4성 장군에 해당한다. 교육학과 81학번인 남영신 장군은 지난 1985년 소위로 입관,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과 제3사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특전사령관) 등 주요 참모와 지휘관을 역임했다. 남 장군은 '첫 비(非)육사 출신 특전사령관'에 이어 지난해엔 마지막 기무사령관이자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임명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군 인사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 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 군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인품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 동아대 학군단 첫 女 대대장 후보생 화제

58년 역사의 동아대 학군단에서 여(女) 후보생으로는 처음으로 대대장 후보생이 탄생해 화제다. 학군단은 지난해 입단한 58기 유현경(독어독문학과 4) 학군사관 후보생을 2년차 1학기 대대장으로 임명했다.

유 후보생은 "군에는 남녀가 없다고 선배에게 꾸준히 교육받았다.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임명된 만큼 동기들과 후배들을 잘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영신 장군**  
교육학과 81학번, 학군단 23기

- 2019. 4. 지상작전사령관
- 2018. 9. 군사안보지원사령관
- 2018. 8. 국군기무사령관
- 2017. 9. 육군 특수전사령관
- 2015. 4. 육군 제3보병사단장
- 2014. 5. 육군 제2작전사 동원전력처장
- 2013. 4. 육군 제7공수특전여단장

▼ 동아대 학군 후보생 및 동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남영신 장군



▼ 특강을 통해 후배들을 만난 남영신 장군



▼ 58기 유현경 대대장 후보생





▲ 교내외에서 모여든 400여 명의 청중으로 성황을 이룬 김성훈 교수 초청 특강

## 10 인공지능(AI) 분야 세계적 석학 김성훈(성킴) 홍콩과기대 교수 초청강연 개최

인공지능(AI) 기반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 세계적 석학인 김성훈(성킴)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이하 홍콩과기대) 교수 초청 강연이 지난 5월 열렸다.

이날 강연에는 동아대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부산·경남지역 대학생, 고등학생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전문가의 강연 소식을 듣고 모여든 400여 명의 청중으로 성황을 이뤘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Software 2.0 x Education 2.0’이란 주제로 새로운 방식의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미국 우수 대학의 요청을 뿌리치고 지난 2009년부터 홍콩과기대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그는 특히 지난해엔 네이버에 전격 영입돼 화제가 됐다. 네이버 클로바 AI리더를 맡아 차세대 인공지능 서비스 연구와 개발을 이끌고 있는 김 교수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Clova, Cloud virtual assistant)’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 발전상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런 기술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컴퓨터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강연자 1명이 여러 사람에게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교육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11 동아대학교 초창기 은사들 소개하는 ‘동아를 빛낸 스승들’ 발간

동아대학교는 개교 73주년과 석당학술원 개원 60주년을 맞아 개교 초창기 은사들을 소개하는 ‘동아를 빛낸 스승들’을 발간했다.

지난 2016년 개교 70주년 당시 출간됐던 ‘동아를 빛낸 인물들’에 이어 동아 역사 찾기 시리즈 두 번째인 이번 책은 신규성(전 동아대 교수)을 비롯, 정중환(전 동아대 명예교수), 김병규(전 동아대 명예교수) 등을 주인공으로, 책 집필은 대부분 이 책에 등장하는 스승들에게 직접 배웠거나 학통을 이은 제자가 맡아 눈길을 끈다. 집필에는 조무제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김광철·김영한·김효진·정상박 명예교수, 이종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 12명의 스승이 담긴 ‘동아를 빛낸 스승들’



▲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8년 만에 대한민국 남자 태권도 금메달을 딴 강민우 선수(왼쪽 두 번째)

## 12 태권도부 강민우 선수 제30회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80kg 금메달

강민우(태권도학과 3) 선수가 2019 제30회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에서 8년 만에 대한민국 남자 태권도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올렸다.

강 선수는 지난 7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2019 하계유니버시아드 9일차 경기에서 태권도 -80kg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이후 8년 만에 나온 남자 태권도 겨루기 종목 금메달이다.

강 선수는 “큰 대회에 출전하는 것에 의의를 뒀고 같은 체급 외국선수들이 워낙 뛰어나 금메달은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둬 감사할 따름”이라며 “한국시각으로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응원해주신 태권도부 선수단 동료들과 감독님, 코치님들께 고맙다”고 말했다. 또 “남은 국내대회 우승을 비롯해 더 큰 대회를 목표로 많이 배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태권도 -80kg 금메달리스트 강민우 학생

## 13 동아대학교 출신 CEO '인당 매출액' 동남권 대학 중 최고

동아대학교 출신 CEO들의 1인당 매출액이 동남권 대학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경제매거진 ‘한경BUSINESS(한경비즈니스)’가 발표한 ‘전국 108만 개 기업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동아대는 대표이사 출신 대학별 1인당 매출액 8억 8,273만 원으로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위 권 내에선 동아대가 지역 사립대는 물론 동남권 대학을 통틀어서도 유일했다. 한경비즈니스는 NICE평가정보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한국 기업의 대표이사 프로필을 분석해 1223호 커브스토리에 발표했다. 출신 대학(학부 기준)이 표기된 한국의 상장 기업 ‘대표이사’ 2,170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동아대는 출신 대학별 대표이사 수에서도 33명으로 전국 대학 중 17위를 차지, 43명으로 14위를 차지한 영남대와 함께 20위 권 내에 이름을 올리며 수도권 이외 사립대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 동아대 교수들 정부 표창 및 학술상 수상 잇따라

동아대학교 교수들이 정부 표창과 권위 있는 학술상을 잇따라 수상해 명예를 드높였다. 윤은기 행정학과 교수가 ‘통일교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부산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윤 교수는 지역사회 통일 교육 기반 구축에 헌신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교수는 지난 2009년 북한학 강의를 시작으로 남북문제와 통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통일학술 활동을 펼쳐왔다. 통일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연구와 더불어 학술대회,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며 통일 연구와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차재관, 노영훈 의과대학 교수는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차재관 교수는 지난해부터 전국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협의회 회장을 맡아 우리나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사업의 정착과 성공에 크게 기여하며, 부산지역 심뇌혈관질환자 관리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다. 차 교수는 “2017년도 운영사업 평가와 2018년도 사업계획에서 보건복지부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동아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동아대병원과 의과대학, 학교법인 등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또 노영훈 교수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간담취외과)으로 활동해오며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 교수는 “달라진 의료 환경으로 인해 의료분쟁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예방 활동도 꾸준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서덕준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의학교육학회로부터 ‘명곡의학교육대상’을 수상했다. 명곡의학교육대상(明谷醫學教育大賞)은 한국의학교육학회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재)희영학술문화재단이 후원한 기금으로 제정됐으며, 의학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의학교육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서 교수는 기초의학 교수로서 30여 년간 의학교육에 몸담아 왔고, 대한의학회 의학교육이사로 활동하며 의과대학 학습목표 개정 및 제정 노력, 의과대학 인증평가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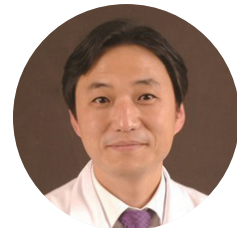
서권일 생명공학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의 ‘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 교수가 수상한 논문은 ‘Pectinase(펙티나아제: 펙틴물질을 분해시키는 효소) 처리를 한 매실 농축액의 이화학적 특성 및 생리활성’이란 제목으로, 항산화 및 항암효과를 비롯한 매실의 생리활성 효과를 평가해 기능성식품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밝힌 내용이다. 서 교수는 “이 상은 생명공학과 식품가공학연구실에서 언제나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원들과 학생들이 함께 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험실 제자들과 힘을 모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윤은기 행정학과 교수



▲ 차재관 의학과 교수



▲ 노영훈 의학과 교수



▲ 서덕준 의예과 교수



▲ 서권일 생명공학과 교수

# 15 교수·동문·재학생 우수한 연구성과 연달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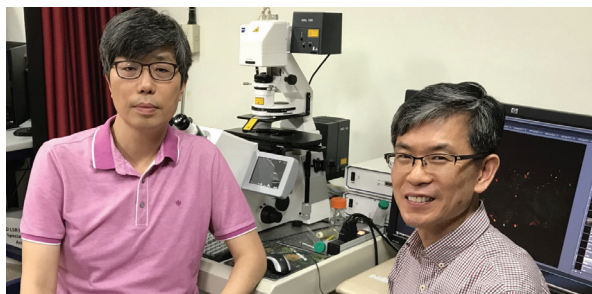
교수와 동문, 재학생들이 연달아 주목받는 연구성과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의과대학 말초신경병증센터(MRC) 소속 고흥중·윤진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파킨슨병 등 다양한 인체 질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체조직의 ‘미토파지 활성화’ 연구를 위한 ‘초파리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고흥중·윤진호 교수는 “‘미토케이마 초파리’는 미토파지 연구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질환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연구모델”이라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미토파지 조절을 통한 새로운 질병 치료방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응용생물공학과 학·석·박사 출신으로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농업연구사인 공현기 동문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곤충’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 ‘셀 리포트(Cell Reports, IF 8.03)’ 온라인 판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로 플라스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폴리에틸렌 분해는 물론, 폐플라스틱을 태우지 않고 효소로 분해할 수 있으며, 미세플라스틱만 골라서 분해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가능해진 것이다. 연구팀은 실용화에 3~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공학과 노병일 학생의 논문 ‘개별적으로 직립된 압전 나노튜브 기반의 티탄산바륨/코발트산화철 자기전기 박막(Individually free-standing piezoelectric nanotubes-based BaTiO<sub>3</sub>/CoFe<sub>2</sub>O<sub>4</sub> magnetoelectric thin films)’이 응용물리학 분야 SCI 학술지 ‘Materials Letters’(IF 2.687)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화학공학과 옥창민, 김서균 대학원생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영국 왕립화학회(RSC, Royal Society of Chemistry)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소프트 매터(Soft Matter)’ 21호(2019년 6월호) 인사이드 커버(inside cover) 논문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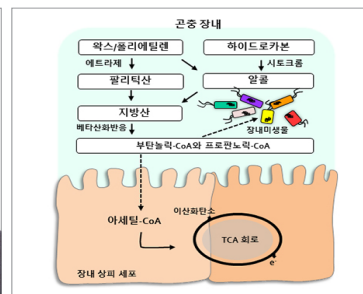
대학원 물리학과 박유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WISET)의 ‘2019년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기존 발광 트랜지스터를 개선해 낮은 구동전압을 가진 ‘하이브리드 발광 트랜지스터’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연구 결과는 지난 1월 SCI 상위 10% 저널 ‘Advanced Optical Material’ 온라인에 게재, 특히 출원도 마친 상태다. 낮은 전압에서도 동작이 가능해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지닌 차세대 전자소자를 개발했다던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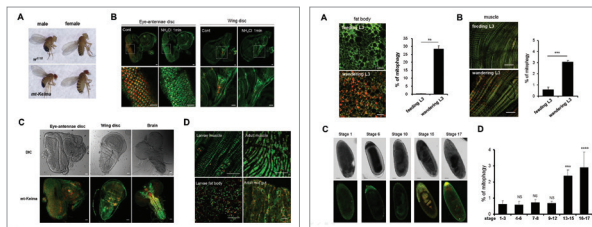
▲ 고흥중·윤진호 교수(왼쪽부터)



▲ 공현기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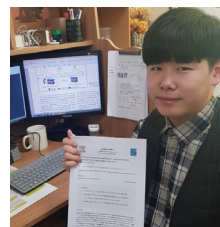


▲ 꿀벌부채명나방의 왁스 분해과정 도식화



▲ 미토케이마 초파리를 활용한 다양한 조직의 미토파지 활성화 측정

▲ 초파리 발생 및 분화 과정에서 미토파지 활성화의 규명



▲ 노병일(화학공학과)



▲ 박유정(대학원 물리학과)

▲ 소프트 매터 표지



## ‘내 삶의 8할은 도전’ 쉽 없는 도전을 말하다!

공병영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교육부 사무관으로 첫발을 디딘 후 줄곧 교육부에서 경력을 쌓은 ‘교육행정 전문가’로 통하는 공병영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동아대 경제학과 78학번인 공 총장은 지난해 10월, 동아대 개교 72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도 공 총장은 후배들을 위한 특강과 발전기금 기부 등 모교사랑을 적극 펼치고 있다.



### 포기 모르는 오독이처럼, 다시 시작

어릴 적 교사를 꿈꿨던 공병영 총장. 고시공부에 10년을 매달려 행정고시 합격,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석사학위 10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뒀다. 포기를 모르는 도전정신과 투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에게 버팀목이자 희망으로 자리한 건 모교였다.

“1977년 동아대 교육학과에 입학했다가 반수 끝에 상경계 열로 다시 입학했으니 모교와의 인연이 특별하죠. 10년간 고시를 준비하느라 고시반인 지독료에 오래 있었어요. 체력이 고갈되다 보니 매일 아침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로 체력을 키웠는데 청춘의 8할이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아대야말로 제 삶의 원동력이었달까요. 이곳에서 힘을 얻고 위로 받고 희망을 꿈꿨으니까요.”

모교에 많은 애정을 가진 그이기에 지난해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은 더욱 특별한 감격을 안겨줬고, 공 총장은 수상의 영광을 후배들을 위한 특강으로 모교에 돌려줬다. 지난 5월 열린 ‘실패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다’란 주제의 특강에서 그는 9전 10기 고시생활 등 생생한 실패담과 과감한 도전기를 전했고, 후배들에게도 모교가 꿈을 키울 수 있는 품 넓은 도약대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공 총장은 “방향하던 젊은 시절 저의 전부이자 마지막 보루가 바로 동아대였다.”며 “모교에서 힘과 열정을 키웠고,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그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단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며 동아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 소통, 혁신, 간절함이 일군 빛나는 성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이었던 충북도립대학교를 자율개선 대학으로 탈바꿈을 이뤄낸 그 중심에는 지난 2017년 11월 취임한 제6대 공병영 총장이 있다. 공 총장은 취임 2개월 만에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 ‘재정자립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학혁신방안을 완성했고 구성원들의 마음을 한 데 모으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2018년 8월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거쳐 발표한 자율개선대학에 충북도립대학교가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대학교육의 핵심은 교육수요자인 ‘학생중심’ 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호흡하면서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운영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는 2021년 임기를 마치게 될 그는 그동안의 대학위기 극복과 행정업무 경험을 살려 “위기를 맞은 대학들이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도움을 주겠다.”는 새로운 도전 목표도 함께 밝혔다. 현재 한국전문대학협의회 감사와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위원, 충북남부발전포럼 위원장, 벤자민인성영재학교 멘토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이기에 새로운 도전이 더욱 기대가 된다. 재경 동아대 출신 고위공직자 모임인 ‘경동회’ 회장도 맡아 동문들을 이끌고 있는 공 총장의 바람대로 ‘한강 이남 최고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모교와 20만 동문이 어김없이 그 도전을 함께할 것이다.

#### 자랑스러운 동아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픈 메시지

‘물이 바위를 뚫는 건 물의 힘이 아니라 두드린 횟수다’란 말처럼 원래 실패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도전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도전하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몇 번째 도전에서 성공하느냐의 차이일 뿐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마음으로

이은남 간호학부 학부장



1996년 3월, 30명의 신입생을 받으며 그 역사를 시작한 동아대 간호학과는 2001년 석사과정, 2009년 박사과정을 개설해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가들과 연계를 강화, 간호학 실무전문가·연구자·교수 등을 배출하는 등 그동안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지난 3월, '간호학부'로 승격하면서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학부장 이은남 교수가 있다.





### 23년 역사 간호학과 최대 경사, '간호학부 승격'

“간호학부 승격은 독립학부로서 단과대학의 성격을 갖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행정·재정적으로 독립성을 갖췄다는 것으로, 학부장이 학과를 대표해 주요 정책과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간호학과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학부 승격 이후 한 학기를 보낸 이은남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강의와 연구로 꽉 짜인 스케줄 사이사이, 학부장으로서는 간호학부 발전을 위해 대학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최근 간호학부의 달라진 위상을 몸소 체감하는 중이다.

그동안 간호학 발전을 위해 간호학부 독립이 수없이 제기돼 왔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이번 승격은 남다른 의미다. 서울대 간호학과 77학번으로 학보사 기자를 하며, 간호학과가 왜 간호대학이 되어야 하는지 어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건의했던 적도 있다는 이 교수에겐 특별한 성취감을 안겨줬다고 한다.

“당시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90년대 초반에 국가에서 서울대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으로 승격시켜줬지만, 이후에도 많은 사립대학들은 지금껏 간호학과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40여 년 전 대학시절부터 주장해왔던 ‘의과대학으로부터 독립한 온전한 간호학부’의 꿈을 이곳 동아대에서 이룬 셈이다.

###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정진하다

1985년 처음 강단에 올라 1998년 동아대 간호학과에 부임, 30년 넘게 후학 양성에 힘써오고 있는 이은남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의 잘하는 교수’다. 모든 이의 귀를 사로잡는 입담에, 지지치 않는 열정으로 동아대에서 최우수강의 교수상을 6회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30년 전 제게 배운 학생들이 지금도 강의록을 가지고 있다면서 ‘살아있는 지식’을 전해줘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이 교수는 대학 졸업 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4년 넘게 근무하면서 쌓은 풍부한 임상경력을 바탕으로 지금도 생생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제자들을 보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간호학은 공부만 잘해서는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우리 간호학부 교육목표인 ‘인간존중’에서 드러나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 이타심이다. 자기만 아는 간호사는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조직에서 섞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남 교수는 “정년까지 남은 4년 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을 간호중재(nursing intervention)와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또한, 간호학부로 승격된 이 시점에 12명의 교수들이 화합해 미래지향적이고 내실 있는 간호학부를 만드는 것이 초대 학부장으로 서의 바람이다.

##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 최수혁입니다

트로트 가수 | 최수혁 학생(산업디자인학과 4)

“우리 모두 만세 외쳐보자 만세♪ 우리 모두 만만세♪”  
무대를 휘저으며 흥을 한껏 올리는 젊은 트로트 가수, 최수혁 학생. 최근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그를 찾는 곳도 부쩍 늘었다. 전국을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 중이다.  
“2년 전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 큰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 자금이 필요했다. 고민하던 차에 부모님께서 ‘너 노래 좀 하니까 가요제 나가봐라’고 권하셨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KBS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을 비롯해 전국 가요제에서 대상을 휩쓸며 일약 ‘트로트계의 셋별’로 떠올랐던 것이다.  
사실 최수혁 학생의 어머니는 19년차 트로트 가수 박소민 씨다.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결국 전공도 디자인 쪽으로 잡았지만, 피와 끼는 못 속이는 법일까. 생애 처음 전국가요제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온몸을 관통하는 짜릿함을 느꼈다고 한다. “주위 분들이 ‘넌 무대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여’라고 얘기를 해주셨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또한 노래로 대중들과 소통할 때 벅찬 감동을 느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는 집에서는 일찍 철든 외아들이고, 친구들과 사이에선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모험가로 통했다. “어렸을 때부터 상상력이 풍부해서 하고 싶은 일도 많았다. 대학생살을 하면서도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도전정신이 트로트 가수가 되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최수혁 학생은 얼마 전 소속사와 성공적으로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노래 연습과 곡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엔 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부지런히 성장해 조용필, 나훈아 선생님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왕이 되고 싶다”는 그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올 때면 어떻게든 독하게, 이 악물고 버티는 편이다. 모든 건 마음에 달려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 최수혁으로 이름 떨칠 그날이 머지않았다.



## “나를, 당신을, 동아인을 응원합니다”

프로스포츠팀 응원단장 | 박민수 학생(토목공학과 4)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중석의 중심에서 열정적으로 응원을 펼치는 이가 있다. 축구와 농구를 넘나들며 프로스포츠팀들의 응원단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민수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축구는 부산아이파크와 상주상무축구단과 함께하고 있고, 지난 시즌까지 프로농구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에서도 활동했다.”는 그는 응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새내기 시절, 평범한 공대생이었던 박민수 학생은 우연히 동아대 응원단에 들어설 때만 해도 오늘의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처음엔 ‘춤도 못 추는데 내가 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 컸다.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고 내가 바뀌는 게 보였다.” 그렇게 시작된 응원단은 대학생활의 전부가 됐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치어리딩대회인 ‘꿈들이 평창 가자’에 참가해 성공적인 올림픽을 기원하며 공연을 펼친 순간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다.

부산아이파크 2015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앞두고 응원단장직이 공식이 되면서 보다 큰 무대로 진출한 박민수 학생은 “응원단장은 나 혼자 잘하는 것보다 관중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큰 것 같다.”고 말한다.

본격적인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4학년, 주위 동기들은 도서관과 학원을 오가며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터라 진로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가 그리는 미래는 확고하다. 좀 더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활동하는 것과 ‘어린이 응원단’을 꾸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박민수 학생은 졸업을 앞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바쁘겠지만 한 번쯤 쉬어가는 여유도 가지면서 10대 때 꿈꿔왔던 대학생활을 누리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다.”며 언제나 당신을, 동아인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 소중한 손길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마음, 동아의 기쁨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이 동아를 크게 키웠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되어 곳곳에 스며든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호학부  
혜원장학금 개설로 후배사랑 실천**

재학 중 유명을 달리한 학생의 부모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대학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고인이 된 학생의 학과 교수들은 이에 뜻을 모아 2,000만 원을 보태 모두 3,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만들어 감동을 주고 있다.故박혜원 학생은 동아대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외동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그의 부모는 딸에 대한 못다 한 사랑을 모교 장학금 기부로 녹여냈다. 아버지 박민철 씨는 “교수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셔서 딸 이름이 남는 장학금까지 생기게 돼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혜원장학금은故박혜원 학생과 같은 학년인 동아대 간호학과 3학년생 2명을 선정해 해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황성주 동문  
도전하는 후배들 위한 나눔**

지난 2월 스포츠지도학과(현 체육학과)를 졸업한 황성주 동문이 후배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장학금을 기부했다. 지난해 초 학교 앞에서 봉어빵 장사를 해 올린 수익금 100만 원을 ‘봉어빵 장학금’으로 기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46일간 산티아고 순례길 924.25km(프랑스 생장~스페인 콤포스텔라~피스테라~묵시아)를 걸으며 세계인에게 ‘독도 알리기’ 활동을 펼치고 돌아온 황 동문은 자신이 걸은 거리에 10을 곱한 92만 4,250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재학 시절 약 2,200만 원의 각종 교내외 장학금을 받은 그는 “후배들이 일반적인 취업을 위한 스펙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돈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신광 입학사정관  
‘홍보대사장학금’ 100만 원 전달**

모교 입학관리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사비로 100만 원을 기부, 학생 1명에게 ‘깜짝 장학금’을 수여해 화제다. 김신광(31) 입학사정관이 기부한 100만 원을 지난 4월 ‘홍보대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서현(경영학과 3) 학생에게 수여했다. 일반인이 사비로 100만 원을 한 번에 기부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김 사정관은 “전세대출과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돈이고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 나 역시 대학생 때 예상치 못했던 장학금 100만 원을 받고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어 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학금을 받은 김서현 학생은 “장학금을 위해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니 받게 된 장학금이라 홍보대사에 대한 애착도 더 커지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신정택 총동문회장  
1억 원 쾌척**

신정택(세운철강(주) 회장) 총동문회장이 개교 100주년 대비 학교사랑 캠페인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지난 4월 동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 가야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창립 70주년 기념 ‘동아 100년 동행 총동문회장 배 한마음 골프대회’에서 신 회장은 발전기금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신 회장은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사심 없는 동문들의 헌신적인 애교심은 놀랍고 존경스럽다.”며 “사랑의 마음을 모아 모교 및 동문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949년 1회 졸업생 33명 배출로 시작된 총동문회 창립 70주년과 20만 동문의 역사는 역대 총동문회장님과 총장님들의 노력은 물론, 동아 동문들의 모교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동아인의 저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향후 ‘동아 100년 동행’ 성공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을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석정 총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3월부터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을 추진해오는 동안 동문들의 모교 사랑과 동아의 저력을 확인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환 (주)영광도서 대표이사  
3,000만 원 기부**

김윤환 (주)영광도서 대표이사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2012년 동아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대표는 국내 대형서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영광도서를 50여 년간 이끌어오며 부산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시켰다. 최근 2년에 걸친 신축공사를 끝내고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전을 마친 영광도서는 서점을 뛰어넘어 갤러리와 공연장, 책 박물관, 북카페, 레스토랑 등을 갖춘 ‘라이프스타일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대학에도 미국 대학처럼 기부 문화가 일상적으로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며 “더 많이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동문들도 늘 모교와 후배들에게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유삼용 한토종합건설(주) 대표이사  
1억 원 쾌척**

유삼용 한토종합건설(주) 대표이사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쾌척했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AMP(최고경영자과정) 48기와 평생교육원 골프CEO아카데미 21기 출신인 유 대표는 평소 이웃과 함께 나누며 주변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골프CEO아카데미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 대표는 이날 모교 발전기금과 더불어 취임식에 기부된 쌀 화학 2,000kg을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인 마리아수녀회에 전달했다. 유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동아대학교 동문회의 높은 위상을 바탕으로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동문들의 화합과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2005년 지역 대학 최초로 개설된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골프CEO아카데미 총동문회에선 2013년부터 해마다 부산시아동복지협회에 기부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토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설립된 공업 및 산업용건물 건설기업으로 제7회 한국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건설대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유 대표는 건실하게 기업을 일구며,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동아대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옥기문 AMP 동문회장  
2,000만 원 기부**

지난 5월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동문회 신입회장에 선출된 옥기문 회장이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석유화학단지 부두 시설물 보수·보강 전문업체 (주)송덕 CEO로 재직 중인 옥 신입회장은 “올해는 동아대 경영대학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로 오랜 역사에는 든든한 지원군인 동문들의 공로가 크다.”며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는 소통의 선후배 문화를 만들어 모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MP 동문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김동규 부총장은 “언제나 모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문들이 동아대의 역사와 전통, 저력의 원천”이라며 “이번에 취임하신 옥 회장님은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지녀 AMP 동문회가 더욱 끈끈한 단합으로 이뤄지도록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  
1,000만 원 기부**

지난 5월 특강을 위해 동아대를 방문한 동문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이 1,000만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준 버팀목이자 도전정신의 근간이 바로 동아대였다.”며 모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공 총장은 ‘실패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다’란 주제의 이날 특강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실패 사례를 과감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며 후배들을 위한 진심어린 조언을 건넸다.

동아대 경제학과 78학번인 공 총장은 교육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줄곧 교육부에서 경력을 쌓은 ‘교육행정의 달인’으로, 지난해 동아대 개교 72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윤설 MBA총동문회장  
1,000만 원 기부**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MBA)총동문회 조윤설 회장이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주)삼영건설 및 (주)큐브스엘이디 대표를 맡고 있는 조윤설 MBA총동문회장은 지난 6월 해운대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개원 50주년 기념 제10회 총장배 석사총동문회 골프대회’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동아대 MBA 제4기 출신으로 지난 3월 제23대 MBA총동문회장으로 취임, 동문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조 회장은 “조직에 대한 성실성과 전문성으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MBA 동문들이 모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수 경영학과 동문  
1,000만 원 기부**

지난해 2월 경영학과를 졸업한 권준수(28) 동문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만능 스포츠맨인 권 동문은 스키강사 활동으로 번 돈을 모교 발전을 위해 내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권 동문은 “성적우수장학금을 비롯해 여러 장학혜택을 받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면 모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동문들의 조그만 사랑이 모이고 모여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을 이끌어어나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한 금융사에서 인턴십 과정을 마친 후 현재 금융권 취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는 권 동문은 “아직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할 입장은 못 되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대들이 늘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응원했다.

경영대학  
릴레이 기부



**경영대학 DAUist 릴레이 기부 20호까지 순조롭게 달성  
기부자모임 ‘다-챔버’, 장학금 1,000만 원 전달**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경영대학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발전기금 릴레이 17호 주자로 류병송 (주)송림수산 대표이사가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료하고 제32대 AMP 동문회장을 역임기도 한 류 대표는 35년간 몸담아 온 수산식품 업계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류 대표는 “동아대 경영대학의 다우이스트(DAUist) 교육이념이 우리나라 교육의 이상적인 미래상이라고 느꼈다”며 “실제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변화가 생기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 더욱 가치 있는 기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락 (주)국제플랜트 회장이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18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1965년 동아대 법경대학 상학과를 졸업한 최 회장은 1994년 (주)국제플랜트와 2001년 영풍개발(주)을 차례로 설립, 고객중심과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플랜트·설비 산업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 회장은 “오늘날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동문들이 적극 활약해 동아대가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며 “모교와 동문들의 끝없는 성장을 위해 ‘발전기금 릴레이’와 ‘동아 100년 동행’ 등 값진 기부들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우 협성화학섬유(주) 회장도 19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1966년 동아대 축산과를 졸업한 조 회장은 농협과 부산은행 대신동지점장 및 사상지점장 등을 거쳐 협성화학섬유(주)를 설립했다. 금융권 경험을 통해 쌓은 리더십과 경제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조 회장은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조 회장은 “동아대는 오랜 시간 가족과도 같은 존재”라며 “모교를 통해 수많은 동문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며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20호 주자로 노은식 디케이락(주) 대표이사가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MBA(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45기 출신인 노 대표는 경남무역협회 부회장, 코스닥협회 부회장, 김해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해강장학회 설립과 지역 소외계층 지원, 네팔 학교 건립 지원 등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노 대표는 “최상의 제품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노력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찾는 기업이 됐다.”며 “빨리 해서 되는 건 없다. 기부금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대 고액릴레이 발전기금 기부자들의 모임인 ‘다-챔버(D-CHAMBER)’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해 눈길을 모았다. 다-챔버는 지난해 7월 결성돼 해마다 2회씩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



### ‘간호학부 승격’ 기념 기부행렬 잇따라

독립학부로 승격한 간호학부에 발전기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간호학부 승격’을 기념하며 간호학부 동문회가 3,000만 원, 동문교수회가 2,200만 원 등 모두 5,2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이은남 학부장은 “지금까지 부산지역 간호인재 양성의 요람이 된 동아대 간호학부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변화와 도전으로 우리나라 간호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간호학부 승격을 기념하는 ‘동문의 밤’ 행사에서 송영선 간호학과 명예교수가 간호학부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송 명예교수는 이 자리에서 “교수진과 학생, 동문 모두의 노력과 염원이 이뤄낸 결실인 간호학부 승격을 계기로 간호인으로서 더욱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자 일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모교와 간호학부 발전에 기여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 조진한 영상의학과 교수 의과대학 릴레이 발전기금 6호 기부

조진한 영상의학과학교실 교수가 의과대학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릴레이 발전기금 6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의과대 학생부학장을 역임한 조 교수는 “강의동 화장실과 동아리방 환경 개선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기금이 쓰여 오래 앉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근 학장은 “단과대 차원의 발전기금 기부로 투자가 이뤄져 학생들이 좀 더 머무르며 교수들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과대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김제경 태권도학과 석좌교수 3,000만 원 쾌척

현역 시절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3연패), 아시안게임(2연패)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태권도 전설’로 불린 김제경 태권도학과 석좌교수가 태권도학과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은퇴 후 20년째 미국에 거주하며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등 태권도 세계화에 기여해 오고 있는 김 석좌교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태권도학과 동문들은 항상 동아대 출신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동아대 태권도시범단이 미국 방문 공연을 할 때 무척 자랑스럽다.”며 “발전기금이 학교와 학과를 위해 소중히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장  
1,000만 원 기부**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6월 24 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에 임명된 최 원장은 동아대 법과대학 을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지난 2000년부터 모교에서 후학을 기르고 있다.

최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불철주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그동안 법대 동문들이나 교수님들의 기부가 꾸준히 이어져왔는데, 이번 발전기금 기부가 마중물이 돼 경영대학이나 의과대학처럼 로스쿨에도 릴레이 기부 물결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석·한미옥·오상석·최순중 MBA 동문  
1,000만 원 기부**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MBA) 총동문회 박종석(MBA 50기)·한미옥 (MBA 52기)·오상석(MBA 41기)·최순중(MBA 50기) 동문이 각각 500만 원 씩 2,000만 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동아대 경영대학원은 1969년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2,100여 명의 석사 동문을 배출하고 있다. 기부를 한 동문들은 “동아대 MBA석사 동문들은 조직에 대한 성실성과 전문성으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동문회의 화합과 학교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정희 MBA 재학생  
1,000만 원 기부**

경영학석사과정(MBA)에 재학 중인 지정희(50)원생이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부산 범일동 귀금속상가에서 18년간 주얼리숍을 운영하다 최근 사업을 정리하고 잠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지 씨는 “그동안 쉽 없이 일해 왔는데 기부를 해야 뭐라도 남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기부는 곧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소 경영과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지 씨는 지난 2017년 동아대 MBA과정 51기로 입학해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어린이지원재단 등 사회 단체에도 해마다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백외분 음악학과 동문  
1,000만 원 기부**

음악학과 2회 졸업생인 백외분 동문이 후배들 교육에 필요한 피아노 구입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백 동문은 지난 1966년 부산 지역 대학에선 처음으로 창설된 동아대 음악학과 2회 졸업생으로, 성악을 전공했다. 현재는 50년 가까이 부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세웅병원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백 동문은 “예전부터 모교에 기부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칠순을 맞은 기념으로 결심했다.”며 “부산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음악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앞으로 동아대 음악학과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석정 총장은 “2회 졸업생이 모교를 찾아 발전기금을 기부하신 건 학교에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 기부로 밝아지는 동아대학교의 미래

동아대학교는 동남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73년 전통과 20만 동문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앞으로도 동아대학교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동아인들의 헌신을 가슴에 품고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발전기금 기부현황(2019년 1월~2019년 7월)

### 단체

(재)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신도시엔지니어링  
 (주)아명여행  
 (주)캡슐텔  
 (주)태영건설  
 간호학과 교수일동  
 간호학과 동문회(최희선)  
 경영문제연구소  
 금융학과 재경동문회  
 대림산업(주)  
 대상(주)  
 동아건축동문회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산업공학과(계약학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계약학과)  
 의과대학 동문회  
 중국텐센타하이  
 케이티엔지부산본부  
 패션디자인학과4학년재학생일동(2018)  
 한림도서관  
 코어엔

### 후원의 집

(주)KB렌트카                    성일숯불갈비  
 (주)디자인풀림                소담  
 (주)엠플컴퓨터아카데미    송원타올  
 (주)올복스                      송이아구럼  
 (주)이에스에스                아름다운 동서여행㈜  
 080안경                        아이스티안과의원  
 갯마을낙지                    어심초밥  
 거양꽃농원                    영의루  
 고향한우                        예쁜미소바른이치과  
 굿치과의원                      예향  
 금호회집                        외갓집꼬리곰탕  
 누리마을감자탕                우리집으로와  
 다빈항                          우송정  
 대공상계탕/대공한우        우진고기가  
 대물림 청송집                이가한우  
 대훈기획                        이모식당  
 더진국하단점                장죽  
 도리원                          장시영 살롱드뷰티  
 동경초밥                        진선  
 동래상계탕 하단점            청죽일식  
 동원장수촌                    초유플라워  
 두드림                          카페이네이티드  
 동지식당                        카를러스  
 목포주거                        콩볼 동아대점  
 밝은노안과                    투썸플레이스 동아대점  
 병천순대국밥                파리바게뜨부민점  
 부미초밥                        하단돼지국밥  
 부산양곱창                    해월정갈비  
 산정                            현대자동차블루핸즈업점  
 산송초밥                        화국반점  
 상록광고기획                화이트e치과의원  
 선미집                          흥부가

### 개인

김승이      고도란      권지연      김대중      김병호      김승희      김재원      김진우      김혜주      류남영      박동식  
 강광률      고상만      권지명      김대현      김보길      김시동      김재윤      김진욱      김혜지      류단비      박용진  
 강금주      고상석      권태정      김태현      김보라      김시범      김재훈      김진웅      김혜진      류미향      박마리  
 강기수      고수현      권환용      김덕규      김보람      김신광      김재홍      김진호      김효룡      류영수      박민숙  
 강나연      고영준      권혁윤      김덕현      김보배      김아영      김정대      김진호      김호준      류병승      박미자  
 강나현      고영조      권희규      김덕경      김보성      김아희      김정만      김진홍      김홍기      류상수      박미란  
 강남우      고원성      권희민      김도경      김보준      김애희      김정일      김진호      김희정      류수연      박미자  
 강대은      고우석      권홍철      김도영      김보후      김양근      김정민      김진후      김희경      류수진      박미희  
 강대훈      고희일      권호철      김도영      김복남      김양이      김정석      김진희      김희선      류용주      박미하  
 강대북      고재현      권희영      김도원      김 본      김연우      김정선      김창성      김희성      류윤아      박미향  
 강대성      고영성      김주섭      김도이      김봉진      김연재      김정은      김창열      김효정      류은영      박민규  
 강대중      고휘성      김가빈      김도환      김상원      김영진      김정일      김창완      김효준      류재용      박민선  
 강대하      공경란      김가영      김도훈      김상덕      김영근      김정환      김창용      김후녀      류정식      박민성  
 강동규      공명숙      김가현      김동규      김상봉      김영란      김정한      김채수      김 훈      류지희      박민정  
 강동일      공미정      김갑경      김동균      김상열      김영민      김정호      김태경      김희경      류혜연      박민주  
 강명진      공병영      김갑진      김동근      김상엽      김영선      김정화      김치완      김희민      류호민      박민지  
 강민주      김보성      김갑욱      김동섭      김상태      김영수      김정훈      김태관      김희선      모소민      박민철  
 강민지      김경영      김건일      김동영      김상현      김영은      김정희      김태근      김희선      문건주      박병준  
 강민혁      공희원      김경민      김동원      김상호      김영일      김제경      김태수      김혜연      문경락      박병국  
 강상모      광광우      김경봉      김동준      김성열      김영재      김종렬      김태영      김희정      문기태      박병권  
 강상훈      광길수      김경욱      김동진      김서경      김영주      김중민      김태완      나      문덕희      박병규  
 강성안      광동우      김경하      김동혁      김서현      김영준      김중수      김태원      나진숙      문병진      박병환  
 강성운      광미진      김경희      김동현      김 석      김영진      김중순      김태운      남경문      문선영      박봉경  
 강성중      광민규      김고은      김두진      김석현      김영찬      김중식      김태진      남경희      문성병      박상갑  
 강수지      광상진      김광란      김두현      김선미      김영하      김중욱      김태철      남광호      문소희      박상근  
 강승현      광영진      김광현      김라영      김선영      김영현      김중운      김태환      남다영      문수현      박상아  
 강승희      광은희      김광희      김라균      김선의      김영현      김중준      김태현      남명구      문수현      박상아  
 강신준      광영표      김규준      김라나      김신준      김영환      김중현      김태환      남성돌      문영주      박상욱  
 강이현      구강민      김규한      김리예      김선홍      김영훈      김중훈      김태희      남석우      문정환      박상원  
 강진호      구관희      김구홍      김민재      김선희      김영희      김주박      김태모      남성모      문지호      박상철  
 강예진      구니영      김근민      김명숙      김성동      김예린      김주영      김하림      남승덕      문철주      박상현  
 강용진      구도윤      김근홍      김명주      김성목      김예림      김주혜      김하정      남승현      문혜원      박상현  
 강원호      김준비      김근비      김명주      김성수      김유연      김준기      남운성      문환웅      문환웅      박상호  
 강은미      김기수      김구환      김명수      김성욱      김완수      김준범      김한슬      남제진      민수기      박상홍  
 강은희      김기영      김무현      김명수      김성하      김완중      김준홍      김주홍      남정홍      민우영      박상희  
 강이래      권경영      김기철      김문자      김성재      김요한      김준영      김한근      남지연      민영식      박석강  
 강익선      권경희      김기훈      김미란      김성진      김용욱      김준우      김항기      남지향      박광수      박석우  
 강인혜      권규리      김길원      김미소      김성태      김용운      김준찬      김찬섭      남찬섭      박건수      박선민  
 강재현      권규안      김길조      김미숙      김성환      김용진      김준희      김현      남창우      박건우      박선영  
 강재호      권기양      김민경      김민숙      김성환      김우승      김중완      김현정      남현정      박경구      박선주  
 강정호      권기향      김나연      김민규      김성훈      김위근      김지건      김현석      남해린      박경남      박설영  
 강정희      권다원      김나영      김민석      김성희      김유리      김지경      김현수      노강민      박경철      박성규  
 강정훈      권동식      김나현      김민선      김성하      김유성      김지상      김현아      노기호      박경만      박성범  
 강주영      권명수      김남국      김민성      김세훈      김유연      김지수      김현우      노민지      박경미      박성봉  
 강주용      권민정      김남수      김민성      김세희      김지수      김지수      김현재      노부영      박경우      박성일  
 강주희      권병욱      김남균      김민수      김소란      김유화      김지연      김현정      노상우      박경원      박성준  
 강준원      권보민      김남영      김민서      김소영      김윤경      김지연      김현준      노소정      박경윤      박성진  
 강지수      권성길      김남우      김민아      김소중      김윤정      김지영      김현진      노영주      박경태      박세미  
 강지연      권수빈      김남정      김민원      김소현      김윤지      김지원      김현철      노영진      박경환      박세영  
 강지현      권남일      김남현      김민정      김소형      김윤진      김지윤      김현호      노옥희      박관태      박세한  
 강지희      권영근      김남희      김민주      김소혜      김윤환      김지은      김향권      노우권      박관중      박선연  
 강진희      권영성      김나은      김민지      김수권      김윤희      김지현      김향기      노유정      박관원      박소영  
 강채원      권영준      김나경      김민호      김수연      김은정      김지혜      김향희      노은경      박광춘      박소현  
 강태은      권영철      김다빈      김민희      김수자      김은주      김지훈      김향빈      노은진      박규라      박소희  
 강태홍      권영택      김다수      김백영      김수정      김은혜      김지희      김형삼      노이진      박규한      박수경  
 강태훈      권오근      김다영      김범수      김의도      김은도      김진      김형석      노중현      박근용      박수근  
 강현아      권오성      김다윤      김범국      김의정      김의정      김진경      김혜란      노준근      박기상      박승연  
 강현아      김다희      김다희      김범국      김의규      김의규      김진규      김혜리      노현숙      박기자      박승진  
 강현욱      권우정      김달호      김범수      김승민      김승민      김진길      김혜미      노현정      박기현      박승훈  
 강현정      권유진      김대경      김범수      김승기      김승기      김진만      김혜민      노현준      박기현      박시연  
 강혜미      권은솔      김대륙      김병조      김승우      김승우      김진산      김혜수      노희곤      박나영      박아름  
 강혜진      권자현      김대륙      김병채      김승덕      김승덕      김진서      김혜원      노희관      박남주      박아름  
 강효진      김주영      김대영      김병채      김승우      김승우      김진수      김혜원      노희수      박남주      박아름  
 강희은      권준수      김대용      김병천      김승태      김승태      김진숙      김혜인      도영화      박동민      박영란  
 계민수      권준희      김대준      김병철      김승호      김승호      김재우      김재우      류경희      박동석      박영미





##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허브 조성’, ‘미래교육관(동문관) 건립’ 등을 대학 경쟁력 강화 목표로 설정, 교직원·학생·동문 등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속과 참여로 펼쳐지는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 📌 캠페인 비전

전통 동아의 명성 재확보와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하는 명문사학으로의 도약

동아인재 양성

동아 지식허브 조성

교육/환경 인프라 확충

### 📌 캠페인 개요

구분	항목
동아인재 양성기금	교육과정 개편 / E-러닝시스템 구축
	우수교원 확보 / 교·직원 역량개발
	국제화 사업 / 해외교육 확대
	동아인재양성 장학기금
동아 지식허브 조성기금	문화사업 / 지역민 초청행사
	산학협력 / 미래 전망분야 육성사업
교육/환경 인프라 확충기금	미래교육관 건립
	중앙광장 조성

#### 캠페인 모금계획(~2020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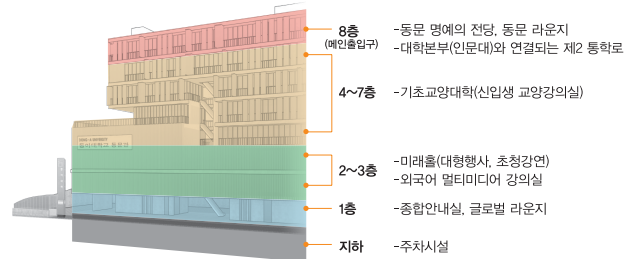
목표 모금액	<b>300억 원</b> (동문, 교·직원, 주요 협력기관 및 개인후원자 대상 모금)
--------	--

※ 캠페인 모금액 외 교비 및 국책사업 예산 추가투입(약 300억 원 규모)

## 주요사업

- 건축개요**
- 총사업비 : 약 150억 원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8층
  - 건축면적 : 1,000㎡(약 300평)
  - 연 면 적 : 8,000㎡(약 2,400평)
  - 사업기간 : 약 30개월(2020년 준공 목표)

- 주요시설**
- 동문 명예의 전당(로비)
  - 기초교양대학 강의실(신입생 교양강의)
  - 미래홀(대형 행사 및 지역민 초청강의)
  - 외국어 멀티미디어 강의실, 스터디룸
  - 글로벌 카페라운지



※ 미래교육관 건립 투시도

## 캠페인 기부참여 안내

### 무통장입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국민은행 118201-04-168318

### 온라인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에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http://fund.donga.ac.kr>



휴대폰 카메라로 읽혀주시면  
 간편하게 약정 가능합니다.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 가입 시 혜택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연말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 교내외 각종 행사 안내 및 초대권 발송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발송 | 본교 소식지 및 동아대학보에 홍보 | 발전기금 홈페이지 '후원의 집'에 등재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 홍보 | 전체 교·직원 대상 홍보메일 발송

## 신규 후원의 집 소개



### 장시영살롱드뷰티

장시영살롱드뷰티는 승학캠퍼스 앞에 위치한 토탈 뷰티 숍입니다. 우리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뷰티숍으로 헤어, 메이크업, 네일, 왁싱, 속눈썹 등 고품격 뷰티 시술을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36번길 8 051-203-8004



### 콩볼 동아대점

승학캠퍼스 입구에 위치한 콩볼 동아대점은 10여 년간 학생들의 사랑을 받아온 맛집입니다. 특허받은 흑마늘 콩나물과 불고기의 환상적인 조화로 건강과 행복한 맛을 느껴보십시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16번길 55 051-904-2211



### 여명여행(모두투어)

여명여행은 우리 대학 동문이 직접 운영하는 모두투어 공식예약센터입니다. 해외여행 뿐 아니라 국내여행, 골프여행, 크루즈 등 개인별 맞춤형 여행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접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대대로 435, 4층 051-266-0234



### 소담

구덕 꽃마늘에 위치한 소담은 오리요리와 곤드레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식당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구덕산 등산에 소담의 건강한 요리와 함께 하세요.

부산 서구 엄광산로39번길 18-3 051-254-1022



### 굿치과의원

환자를 먼저 생각하여 정성을 다하는 치과. 당리역 4번출구 앞에 위치한 굿치과의원은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07 051-203-2828



### 우송정

우수한 품질의 암소한우만을 취급하는 한우 전문점입니다.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암소한우구이에 정갈한 음식은 가족외식은 물론 회식에도 적합합니다.

부산 사하구 제석로18번길 75 051-202-5570

### 가입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E-mail : [nwaxe@dau.ac.kr](mailto:nwaxe@dau.ac.kr) Homepage : <http://fund.donga.ac.kr>

※ 전화문의 또는 가입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 기부안내

동아의 73년, 20만 동문의 기부로 100년의 역사를 향해 도약합니다.

### 동아사랑 1인 1계좌 참여운동



'동아사랑 1인 1계좌'는 매월 소액(1만 원)으로 동아 발전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정기기부 운동입니다.

※ 1계좌당 1만 원이 기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계좌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네이밍 도네이션



우리 대학의 건물,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에 기부자들의 아호를 명명해 새기고 있습니다. 동아의 역사와 함께 할 뜻 깊은 기부를 기다립니다.

### 장학기금 및 기타 목적기금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목적은 장학기금, 학과 발전기금 등으로 지정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 기부 시 기부금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기부방법

### 무통장 입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국민은행 118201-04-168318

### 방문납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외협력처(본부건물 3층)로 내방하셔서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공제

교직원에 한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CMS납부

CMS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 약정방법

### 전화·방문·온라인 약정

전화 혹은 방문해주시면 발전기금 약정과 납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약정은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에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 Homepage

<http://fund.donga.ac.kr>

### 우편

우)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대학본부 3층 313호)

## BEYOND 동아!

학과 · 대학을 넘어 (Boundaryless)

대학시절을 넘어 (Entire Life)

한계를 넘어 (Y-Why-not)

강의실을 넘어 (On&off)

규제를 넘어 (New Ground)

타율을 넘어 (Design By Self)



송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www.donga.ac.kr](http://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http://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https://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https://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https://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